

## 2만2574km 여행 끝에 현대미술 작품된 독도 사는 갯강구

November 30, 2017 | 박정환 기자

page 1 of 3



개념미술 작가인 마이클 주의 실크스크린 연작 리미누스에는 작품 제작과정에서 독도에 사는 갯강구가 그대로 붙어 있다. 재미교포2세인 그의 개인전 '단회 호흡법'이 30일부터 오는 12월30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2017.11.30/뉴스1 © News1 박정환 기자

바퀴벌레를 닮은 바다벌레인 갯강구가 우연히 독도에서 뉴욕까지 건너가 개념미술 작품의 일부가 됐다.

이민 2세대 한국계 미국의 개념미술 작가인 마이클 주(52)가 2008년에 이어 10년만에 한국에서 갯강구가 붙어 있는 실크스크린 연작 '리미누스'(Liminus)를 비롯한 신작을 선보이는 개인전을 개최한다.

마이클 주 개인전 '단회 호흡법'이 3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제갤러리 2관과 3관에서 열린다. 이번 개인전은 크게 유리공예, 실크스크린, 모빌 등 세 가지 소재를 사용한 신작 30여 점을 선보인다.

마이클 주는 2001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를 비롯해 영국 서펜타인 갤러리, 화이트 큐브 갤러리, 미국 휘트니 비엔날레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을 가지며 국제적으로 화려하게 주목받고 있는 작가다.

그는 이날 국제갤러리에서 기자들들과 만나 "이번 전시는 플라스틱, 돌, 유리 등 작품 재료가 다르지만 에너지, 숨 등 유동적인 것을 순간적으로 포착한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독도에 살던 길이 1.8cm인 갯강구는 국제갤러리 2관 2층에 전시되고 있는 실크스크린 연작 '리미누스'의 일부가 됐다. 리미누스는 작가가 한계를 뜻하는 라틴어 '리머널'(Liminal)과 빛을 뜻하는 '루미누스'(Luminus)를 합성한 신조어다.

마이클 주는 2017년 독도에 방문해 이 연작을 제작했다. 그는 "지면 위에 캔버스를 올려놓고 송진을 뿌려 72시간 동안 지면을 탁본했다"며 "독도는 평화롭고 조용한 동도와 바람이 거친 서도로 나뉘는데 갯강구가 캔버스에 날아온 곳은 서도"라고 설명했다.

'리미누스' 연작에는 갯강구 뿐만 나뭇가지, 이파리, 새 깃털 등 자연 환경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마이클 주는 송진이 굳은 캔버스를 미국 뉴욕에 있는 공장으로 가져가 사진을 현상할 때 쓰는 질산은을 덧칠해 작품을 완성했다.



갯강구를 비롯해 나뭇가지, 이파리, 새 깃털 등 독도의 자연 환경을 찾아볼 수 있는 연작 '리미누스'가 국제갤러리 2관 2층에 전시돼 있다. 재미교포2세인 마이클 주 개인전 '단회 호흡법'이 30일부터 오는 12월30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2017.11.30/뉴스1 © News1 박정환 기자

2관 1층에는 개인전 제목과 동명의 연작 유리공예인 '단회 호흡법'(Single Breath Transfer)이 있다. 의학용어인 '단회 호흡법'은 허파 내 질병을 파악하기 위해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뜻한다.

마이클 주는 독도를 이루는 두 섬인 동도와 서도를 각각 방문해 지면에 캔버스 천을 고정된 뒤 레진을 사용해 72시간 동안 지형의 본을 뒀다. 그는 "연작 '단회호흡법'은 사람의 날숨을 종이 및 비닐 봉투로 포착한 후 유리로 캐스팅하여 제작했다"며 "찰나에 흩어지는 인간의 숨을 영원히 고정되는 유리주물로 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갤러리 3관에는 모빌 작업인 '우리들의 이야기'가 전시돼 있다. 이 작품은 독도의 폐기된 구조물에서 가져온 재료들과 화산석을 100배 확대해 목탄으로 제작한 인공바위 등으로 제작했다. 무료. 문의 (02)735-8449.



개념미술 작가 마이클 주가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제갤러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모빌작품 '우리들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 재미교포2세인 그의 개인전 '단회 호흡법'이 30일부터 오는 12월30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2017.11.30/뉴스1

© News1 박정환 기자



개념미술 작가 마이클 주가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제갤러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연작 '단회 호흡법'(노란색 유리공예) 제작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재미교포2세인 그의 개인전이 30일부터 오는 12월30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2017.11.30/뉴스1

스1 © News1 박정환 기자